

지자체, 한방 육성 계획 박차'

지역별 특성 맞게 기능성 분담 필요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방밸리, 한방산업단지 등 한방 육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적극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한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성공할 경우 한방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자체의 수입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오는 2015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 수성구 일대에 40만평 규모의 한방 바이오 밸리를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밸리에는 한의약청과 한방바이오 산업단지, 한방 바이오 산업진흥원, 테마 지구, 한방유통지구, 교육지구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한의약청은 한약제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한방자원 개발, 한약종자 관리, 연구 지원 등을 맡게 되고, 한방 바이오 산업진흥원은 한약재 규격 검사소와 효능인정센터 등을 갖추게 된다.

경북 상주는 2011년까지 520억원을 들여 200만평 규모의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약초 재배단지과 관광휴양건강센터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북분원의 설립과 함께 2010년까지 총 68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방자원을 연구개발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한방자원의 국제적 표준화를 선도하는 등 국제적인 한방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주와 익산 정읍 완주 진안 등 5개 시군이 한방관련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등 한방과학산업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한약재 물류시설과 한약재 판매장, 한의박물관, 한방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삼최대 생산지인 진안군은 홍삼을 세계적 한방상품으로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홍삼 및 한방빌리지” 구축을 추진중이다.

임수진 진안군수는 “진안은 산간고원지역으로 약초 재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숙근약초시험장이 위치해 있어 생산과 연구가 결합된 지역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3천평 부지에 기존의 인삼약초 유통시설을 통합 순수 국산약초와 홍삼을 거래할 수 있는 ‘한방약초센터’ 건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진안군은 이와함께 홍삼약초체험관, 약초동산 등을 조성, 한방약초와 지역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하는 유통중심지 기능의 한방오장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익산시는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한의학 전문연구소 설립하는 한편 한방의

‘한약재 감별사제’ 도입 추진 복지부, 한약재 품질관리 차원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을 감정, 평가하는 ‘한약재 감별사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 산업단지 조성 등 한의학 육성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

한 가운데 지역별로 풍토에 맞는 한약재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이를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김화중 장관은 “전국에 한방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한약재의 대량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약재의 질 저하를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약재 감별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감별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약사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적잖아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재 감별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를 청정 한약재 생산기지로

한의사 20여명을 주축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주)BH 바이오테크(대표 최병학)가 제주에 청정 한약재 생산기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주)BH 바이오테크 최병학 대표는 최근 “제주지역에 한약재 계약재배단지과 한약재가공공장 등을 갖춰 제주를 한약재 생산기지로 만들고 나아가 한방종합병원, 실버타운 등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봄에 북제주군 조천, 구좌, 애월, 한림 등 4개 지역 20만㎡에 당귀, 감초, 황기 등 13종의 약초를 파종, 시험재배하고 있고 가을에는 천궁과 작약 등 5종의 약초를 10만여㎡에 파종,

시험재배해 제주 재배에 알맞은 약초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에서 생산된 한약재의 가공처리를 위해 1차로 40억원을 들여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2만7천㎡에 한약재 가공공장을 짓기로 하고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BH 바이오테크는 사전 조사 결과 제주에서 40여종의 약초 재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2005년부터 연간 300억원어치 이상의 한약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약초 가공·판매뿐만 아니라 한방화장품과 기능성 건강식품 등을 개발하고 약초 동산, 한방약초 전시관, 한방종합병원, 실버타운 등도 조성해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한약재 품질향상을 위한 토론회

한약재 품질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월 29일 한약발전연합회 주최로 제기동 소재 경동프라자 2층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생약협회 엄경섭 회장은 “국산한약재 품질향상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국산한약재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약협회는 약용작물 4개품목에 대한 GAP를 시범 관리중”이라며 “농림부가 추진중인 GAP약용작물 생산품도 한의약육성법 안에서 보호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현실적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경기지역 회원들이 대거 참석, 국산한약재 품질향상 대책마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들과 엄경섭 회장.

료(건강) 산업단지와 한방 관광 휴양단지 및 실버타운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읍시는 청정한 약재 생산단지 및 유통저장시설을 조성하고 기능성물질 탐색 및 이용을 위한 산·학·연·관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약용식물 종합가공 산업 육성과 한방관광 휴양 테마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간의 한방산업 육성 내용에 중복된 사업이 많아 역할에 대

한 기능성 분담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9월26일 여의도 58층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환황해권 한방산업육성포럼”에서 전북대 배병렬교수는 “사업의 성공여부는 지역민들의 공감대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생활패턴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사업전략도 중요하고 지역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방항로 이용 밀수 급증 여행자 휴대품 감시 대폭 강화

강원도 속초와 중국 훈춘, 러시아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북방항로를 이용한 밀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동해세관 속초출장소에 따르면 울릉도 현제까지 북방항로를 운항하는 동춘호를 이용, 중국산 고추를 비롯해 가짜 롤렉스시계, 녹용 등을 밀반입한 밀수입자 24명을 적발하고 5억3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밀수입 금액이 18배 가

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따라 동해세관 속초출장소는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 수입화물과 여행자휴대품 감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동해세관 관계자는 “북방항로를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늘어나면서 밀수입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밀수입품을 수산물 등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말했다.

운남성 농업과학원 고산경제식물연구소장 생약협회방문

심양시농간연합기업총공사 임직원과 산하 농장주 총 7명은 심양에서의 부가가치 작물개발과중약재재배기술전학, 시장발굴 등을 목적으로 지난 9월18일

생약협회를 방문. 엄경섭 회장은 이들 방문단들에게 생산자단체인 우리 협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9월20일에는 운남성 농업과학원 고산경제식물연구소 양징환 소장등 2명이 협회



를 방문하고 협회 직영매장을 견학했다.